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12.1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- 佛, 이슬람 극단주의 차단을 위한 「공화국 원칙 강화법*」 초안 공개
 - 12.10 佛 정부는 종교시설에서 범·이념보다 종교적 율법을 우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「공화국 원칙 강화법」 초안을 공개

* 주요 내용 : △학교 外 집·종교시설·단체에서 3세 이상 교육 엄격히 제한, △이슬람 사원의 교육 목적 등 사용 제한, △폭력·증오·차별범죄 선동 용의자의 이슬람 사원 출입금지, △이슬람 사원이 1만유로(약 1천300만원) 이상 기부받는 경우 신고, △의사가 여성의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증명서 발급시 최고 징역 1년 처벌, △일부다처제 가정의 佛 영주권 취득 불가 등

- EU, SNS內 테러 암시 게시물 '1시간 이내 삭제' 법안 합의
 - 12.11 AP통신은 EU 정상회의(12.10)에서 페이스북·트위터 등 SNS의 테러 암시 게시물을 해당 플랫폼이 1시간內 삭제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하였다고 보도
 - * 同 법안은 EU의회 승인 後 회원국 EU담당 장관의 합의를 통해 정식 발효 예정

아 · 태평양

- 한국공항공사-KAIST, '한국형 드론 탐지 레이더' 개발
 - 12.11 한국공항공사는 KAIST와 함께 '한국형 드론탐지 레이더'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, '21년부터 제주공항에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
 - * 공항 주변 2.5km 이내 '초소형 드론' 탐지가 가능하며, 드론과 조류의 구분 가능
- 印尼 경찰, 발리테러 등 '폭탄 전문가' 18년만에 체포
 - 12.13 印尼 경찰은 '02년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와 '03년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 테러 용의자인 폭탄 전문가 「줄카르나엔*」 (57세)을 수마트라섬 동람퉁에서 체포(12.10)하였다고 발표
 - * 아프간 '알카에다'에 합류, 군사훈련을 받고 폭탄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파악

미 주

○ 美 트위치, 혐오·폭력·극단주의 콘텐츠에 강력대응 발표

- 12.9 세계 최대 인터넷 게임방송 '트위치'*는 백인우월주의 이상화·인종차별·혐오 표현 등 극단주의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, 반복 등록시 계정을 영구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

* '11.6월 서비스 시작, 전세계 게임방송 70%를 점유하고 월평균 사용자는 약 19억명

○ 美,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27년 만에 '수단' 삭제

- 12.14 현지언론은 美 국무부가 아프리카 대륙의 아랍연맹 회원국인 수단을 27년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으며, 이스라엘과 아랍연맹 국가간 수교를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고 보도

* '93년 미국은 알카에다 수장 「빈 라덴」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/ 북한·이란·시리아 등 3개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유지

○ 美 국무부, 바레인 '사라야 알 무크타르' 테러단체 지정

- 12.15 美 국무부는 바레인에 근거지를 두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'사라야 알 무크타르'(Saraya al- Mukhtar)를 △바레인 정부 전복, △바레인 주둔 미군 공격, △바레인 관리 암살에 대한 현상금 제공 등 혐의로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했다고 발표

중 동

○ 이라크, ISIS 조직원 42명 사살

- 12.15 이라크 대테러국(CTS)은 ISIS의 옛 근거지인 모술 남부 아인 알자하슈 지역에서 터널·동굴 등 ISIS의 은신처를 습격해 이틀간의 교전 끝에 ISIS 조직원 42명을 사살하였다고 발표

○ 사우디, 싱가포르 유조선 폭발 '자폭 테러'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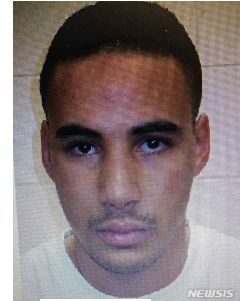
- 12.15 현지언론은 서남부 항구도시 제다의 저유시설에서 휘발유를 하역하던 싱가포르 유조선 'BW라인'의 폭발(12.14)은 '폭발물을 적재한 소형보트가 유조선에 자폭테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'고 보도

* 사우디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석유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

佛,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마켓 총격테러

- '18.12.11 저녁 8시경 EU의회 본부가 소재한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마켓 인근에서 총격테러가 발생하여 5명 사망·11명 부상

- 범행 직후 도피한 용의자는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으로 이틀 후인 12.13 스트라스부르 노이도르프 지역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



<세카트 세리프>

- 테러범은 알제리계 프랑스인 「세카트 세리프*」 (29세)로 확인
 - 同人은 독일에서 절도죄로 8개월 복역 후 '17.2월 프랑스로 추방되었으며, 당국에서 테러 감시목록 'S파일'**에 등록하여 관리
 - * 프랑스·독일·스위스에서 폭력·강도 등으로 27번의 유죄판결을 받음
 - ** 佛 당국은 잠재적 극단주의자(안보위협 인물) 약 2만6천명을 'S 파일'로 관리
- 당국은 同人이 복역중에 극단주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, 'S 파일' 관리 대상이었음에도 사전에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관리 강화방안 마련 추진

테러 상식

< 외로운 늑대(Lone Wolf) >

■ 외로운 늑대(Lone Wolf)

- (정의) 정부 또는 특정 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배후세력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본래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랴르를 기습한 체첸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1990년대 중반 미국의 극우 인종주의자 앨릭스 커티스가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행동을 선동하며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
- (특징) ISIS 등 테러단체의 선전·선동에 심취해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테러를 준비·실행, 테러공격 준비·방식 등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 쉽지 않고 '로우 테크·소프트타겟'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인명피해 초래 가능